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교황 “여성·아동 매춘·인신매매 근절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및 아동을 매춘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난민과 이주노동자 등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태국 방문중이던 21일 두 차례나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 및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저녁 6만명가량의 가톨릭 신도가 객석과 운동장을 가득 메운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매춘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인간의 존엄이 굴욕을 당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앞서 교황은 오전 정부청사에서 뿌라웃 째오 차 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히 상처받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와 노예화, 폭력 그리고 학대에 노출된 우리 시대의 모든 여성과 아동을 생각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교황은 “이 재앙을 뿌리 뽑으려는 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이런 악(惡)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와 함께 미사에서 마약 중독자, 이주 노동자, 학대받는 선원 등을 언급한 뒤 “이들 모두는 우리 가족의 일부” 라며 “우리 공동체가 그들의 얼굴과 상처를 볼 기회를 빼앗지 말자.” 고 언급했다. 그는 오전 행사에서도 난민 등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비극적인 탈출’ 을 견뎌야만 했고 여전히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동체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오전에는 왓 락차보 팻 사원을 찾아 태국 불교 최고지도자인 솜땃 프라 마하 무니왕을 만났다. 대형 불상 앞에서 불교계 최고 인사로 만난 교황은 가톨릭인들이 태국 내 불교도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환경을 돌보기 위한 일에 더 애쓰겠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 왔다.



추수와 감사 (목 4:35-38)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농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농사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추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사는 모든 부분에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곡식을 가꿀 때도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감사절입니다. 추수의 때는 바로 감사의 때와 동일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모든 때가 다 감사의 때이지만 특별히 추수 때를 감사절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그 동안에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추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사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1. 추수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고 했습니다.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다른 것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추수는 시간을 놓치면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은 열매와 감사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그의 삶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마다 감사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 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추수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감사에도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동일한 일이라도 불평하면 그 일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일이 감사할 일이 되고 우리가

불평하면 그 일이 불평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킬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나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3. 추수에는 함께라는 협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심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가꾸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수고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모두의 수고와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 담는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열매를 거두면서도 자신의 수고만 보지 않고 모두의 수고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함께라는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절은 추수를 하면서도 자기 혼자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조병우 목사-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w.com
info@suh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